

이윤덕: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연주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, 보통 연주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요?

도이쉬: 제일 먼저, 연주 요청을 한 교회측에 스타프 노트를 요청합니다. 오르간이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, 프로그램을 써지요. 악기가 가진 소리에 따라 새로운 곡을 준비하기도, 이미 연주했던 곡을 준비하기도 해요. 프로그램이 다 짜여지면, 스타프를 붙여 라웁니다. 소리가 어떻게 울릴지를 상상하고, 간단도 나누어 연습하지요. 연주하게 될 오르간에서의 연습시간은 항상 부족하기에 이렇게 준비하면 소리를 만드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. 연주가 많을 경우, 겹쳐지는 곡이 없도록 조정하는 일도 중요해요. 주중에 레슨으로 시간이 꼭 쪼여져 있기 때문에, 연습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해요. 저희 연주 활동도 아주 중요하지만, 가르치는 일도 제겐 아주 중요합니다. 비율로 말하자면 50:50 이랄까요?



이윤덕: 가르치는 일도 상당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,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지요?

도이쉬: 저희 클래스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, 저는 그들을 국적이 다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격이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학생들의 성격에 따라 다른 레슨 방법이 중요 합니다. 각각 다른 성격의 학생들을 위해, 학기가 시작 할 때면 개개인을 위한 계획표를 세우지요. 어떤 곡을 연주할 지, 또한 무엇을 고쳐야 할 지를 기록합니다. 매 학기 클래스 연주도 여러 번 있는데, 보통 첫 학기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연주를 시키지 않고, 2,3학기 학생들부터 연주를 시킵니다. 첫 학기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알아가느라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, 2,3학기가 되었을 때, 비로소 연주할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지요. 연주를 할 때 있어서 준비된 마음과 실력, 그리고 자신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이윤덕: 리스트나 모짜르트 곡을 칠할 때, 충절을 부여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?